

WEBVTT

00:00:12.162 --> 00:00:12.887

반갑습니다.

00:00:13.016 --> 00:00:14.840

루카스 진민 쌤이고요.

00:00:14.940 --> 00:00:17.448

이제 21강 들어가겠습니다.

00:00:17.548 --> 00:00:19.875

저희가 지금 자연지리 단원.

00:00:19.975 --> 00:00:22.794

교과서 2단원 배우고 있는데요.

00:00:22.894 --> 00:00:28.050

이번 시간은 뭐랄까요,
지리 영역이기도 하지만

00:00:28.150 --> 00:00:32.765

여기는 생활과 윤리에서 아예
그냥 이 테마를 따로 배웁니다.

00:00:32.865 --> 00:00:35.555

그러니까 이른바 환경윤리라고 해서

00:00:35.655 --> 00:00:39.828

그 수능 생활 윤리에서 가장
어려운 주제 중의 하나가 이한테

00:00:39.928 --> 00:00:45.074

우리 고등통합 사회에서는 그
복잡한 관점은 다 빼고

00:00:45.174 --> 00:00:49.252

가장 기본적인 딱 2개의
관점만 정리하는 거예요.

00:00:49.352 --> 00:00:54.005

그래서 인간 중심주의하고
정반대인 생태 중심주의.

00:00:54.105 --> 00:00:57.536

이 두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
관점만 정리하는 겁니다.

00:00:57.636 --> 00:00:58.179

아시겠죠?

00:00:58.279 --> 00:01:02.818

그래서 동물 중심주의, 생명
중심주의, 레건과 싱어의 비교.

00:01:02.918 --> 00:01:04.774

이런 어려운 게 있어요.

00:01:04.874 --> 00:01:09.204

그런데 그건 생활과 윤리에 가서

배우시면 되고, 아시겠죠?

00:01:09.304 --> 00:01:13.805
여기 통합 사회에서는 제가
제공해드리는 그 교안만 딱 보면

00:01:13.905 --> 00:01:17.134
5종 교과서 주제 다
보는 겁니다, 아시겠죠?

00:01:17.234 --> 00:01:19.338
그러면 바로 갈게요.

00:01:19.438 --> 00:01:22.926
테마 2번, 인간과
자연의 관계라는 것인데

00:01:23.026 --> 00:01:30.319
일단 간략하게 제가 일종의 주제 브리핑
같은 걸 잠깐만 해드리면 봐 봐요.

00:01:32.400 --> 00:01:39.062
환경윤리를 배우는 겁니다,
원칙대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윤리.

00:01:39.162 --> 00:01:40.740
다시 한번 말씀드리면

00:01:40.840 --> 00:01:45.741
우리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
어떻냐, 이거 배우는 거예요.

00:01:45.841 --> 00:01:49.192
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
관점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.

00:01:53.489 --> 00:02:01.034
인간과 자연이 있다면 첫 번째 관점은
자연보다 우리 인간이 먼저고

00:02:01.134 --> 00:02:03.287
자연은 도구에 불과하고

00:02:03.387 --> 00:02:08.263
자연은 우리 인간들의 편의성을
위해서 존재하는 일종의 수단,

00:02:08.363 --> 00:02:11.978
물질적인 재료에 불과하다,
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.

00:02:12.078 --> 00:02:14.503
그러니까 인간이
자연보다 우위에 있다.

00:02:14.603 --> 00:02:18.148
인간이 소중하다, 인간이
잘났다, 이런 거겠죠.

00:02:18.717 --> 00:02:21.820
그러면 이것과 정반대의

관점은 뭐냐,

00:02:21.920 --> 00:02:28.213

인간과 자연이 있다면
정반대의 논리겠죠?

00:02:28.313 --> 00:02:33.149

전체 자연생태계가 좀 더 중요하지
않냐, 이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.

00:02:33.556 --> 00:02:37.956

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
개념을 구분지으시면 됩니다.

00:02:38.056 --> 00:02:43.855

제목을 달아드리면 이걸
자연은 도구에 불과해.

00:02:43.955 --> 00:02:50.629

자연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
수단, 물질적인 재료에 불과하지.

00:02:51.061 --> 00:02:52.473

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.

00:02:52.573 --> 00:02:56.925

도구적 자연관, 자연은
도구에 불과하다, 오케이?

00:02:57.025 --> 00:03:01.660

그리고 정식 명칭은 인간 중심주의.

00:03:01.760 --> 00:03:03.052

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.

00:03:03.152 --> 00:03:06.773

인간이 주인공이라는
거죠, 이해되겠죠?

00:03:06.873 --> 00:03:08.151

자연은 도구에 불과하다.

00:03:08.251 --> 00:03:11.947

이 인간 중심주의적
관점을 조금 깊이 있게

00:03:12.047 --> 00:03:18.094

여러 사상가를 한번 배워보자는 게
이 테마의 취지예요, 아시겠죠?

00:03:18.194 --> 00:03:23.014

반면에 이 밑에 거는
인간보다 자연 전체.

00:03:23.114 --> 00:03:26.696

그러니까 생태계 전체가 좀 더
중요한 거 아니냐, 라는 거죠.

00:03:26.796 --> 00:03:33.424

그래서 여기서 전일주의라고
합니다, 한자어로 전일주의.

00:03:33.524 --> 00:03:34.685
전일주의적 관점.

00:03:34.785 --> 00:03:37.530
한문을 한 번만 간단하게
써드리면 한문도 쉬워.

00:03:37.630 --> 00:03:41.638
전, 영어로 total 전부.

00:03:41.738 --> 00:03:43.592
일, 하나라는 뜻이에요.

00:03:43.692 --> 00:03:49.047
그래서 지구 전체가 지구
전 생태계가 하나의 생명공동체.

00:03:49.147 --> 00:03:54.463
어떤 유기체, 지구를 살아있는 것으로
바라보는 게 이 전일주의적.

00:03:54.563 --> 00:03:57.391
그러니까 일종의
전체론적 관점인 거죠.

00:03:57.491 --> 00:04:01.100
자연 생태계 전체가 개체보다.

00:04:01.200 --> 00:04:02.446
그러니까 인간, 동물, 식물.

00:04:02.546 --> 00:04:04.445
이런 것들도 물론 소중하겠지만

00:04:04.545 --> 00:04:09.997
자연 전체에 좀 더 강조점을 두는
것이 바로 이 전일주의, 오케이?

00:04:10.097 --> 00:04:13.804
이걸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
이야기하고 있느냐,

00:04:13.904 --> 00:04:19.480
인간보다 생태 환경이 좀 더
중요하지 않습니까, 라고 해서

00:04:19.580 --> 00:04:21.914
생태 중심주의라고 해요.

00:04:22.014 --> 00:04:25.525
알도 레오폴드라는
사상가가 있는데요.

00:04:25.625 --> 00:04:32.062
그 레오폴드의 표현을 다시 한번
빌려드리면 이걸 대지 윤리라고 합니다.

00:04:32.162 --> 00:04:36.531
거대한 대지 공동체를 도덕적으로
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,

00:04:36.631 --> 00:04:38.145
이 정도 논리로 잡으시면 돼요.

00:04:38.245 --> 00:04:42.932
그러니까 인간이 주인공이냐 아니면
자연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

00:04:43.032 --> 00:04:47.602
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,
인간이 먼저냐, 자연이 먼저냐.

00:04:47.702 --> 00:04:51.772
이 두 개의 양쪽 극단적 관점을
배우시는 겁니까, 아시겠죠?

00:04:51.872 --> 00:04:53.513
그러면 가볼까요?

00:04:53.613 --> 00:04:56.610
별로 어려운 내용은
아니에요, 아시겠죠?

00:04:56.710 --> 00:04:59.216
첫 번째로 인간 중심주의.

00:04:59.316 --> 00:05:03.600
인간이 소중해, 자연은
도구와 수단에 불과해.

00:05:03.700 --> 00:05:04.683
이런 것이었죠?

00:05:04.783 --> 00:05:10.821
그래서 내용을 잠깐만 보면 첫 번째,
인간한테만 본래적 가치를 인정한다.

00:05:10.921 --> 00:05:13.511
여기서 말하는 본래적 가치라는 것은

00:05:13.611 --> 00:05:18.332
다른 말로 내재적 가치라고
해요, 내재적 가치.

00:05:18.432 --> 00:05:25.993
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
도구라든가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고

00:05:26.093 --> 00:05:31.599
인간 그 자체가 본래적으로
가치가 인간에게 내재되어있다.

00:05:31.699 --> 00:05:35.523
인간 자체가 목적이다, 수단
도구가 될 수는 없는 거다.

00:05:35.623 --> 00:05:36.884
이런 논리입니다.

00:05:36.984 --> 00:05:37.702
오케이?

00:05:37.802 --> 00:05:40.170

인간을 도구 취급할
수는 없다는 거죠.

00:05:40.270 --> 00:05:43.951

인간만이 본래적, 내재적
가치를 지니고 있다.

00:05:44.051 --> 00:05:46.228

이게 인간 중심주의의
기본 논리입니다.

00:05:46.328 --> 00:05:48.962

그러면 자연은 뭐냐, 뭐긴요.

00:05:49.062 --> 00:05:51.895

인간의 이익과 필요에
따라서 평가하겠다.

00:05:51.995 --> 00:05:58.430

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
인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환경은

00:05:58.530 --> 00:06:02.599

그냥 단순한 도구, 수단적
가치에 지나지 않는다.

00:06:02.699 --> 00:06:07.363

마음껏 얼마든지 정복할
수 있다, 이해되겠죠?

00:06:07.463 --> 00:06:10.350

다음 특징, 다 똑같은 말이에요.

00:06:10.450 --> 00:06:14.522

1번, 인간을 다른 존재보다
우월하고 귀한 존재로 인식한다.

00:06:14.622 --> 00:06:15.720

당연한 말이죠.

00:06:15.820 --> 00:06:17.316

인간만이 목적이고.

00:06:17.416 --> 00:06:20.583

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높은
존재라고 보는 것이니까

00:06:20.683 --> 00:06:26.358

인간이 가장 우월한 존재고 가장
존귀한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.

00:06:26.458 --> 00:06:27.547

다음 두 번째요.

00:06:27.647 --> 00:06:31.540

조금씩 전문적인 용어가
나오는데요, 별표.

00:06:31.640 --> 00:06:36.480

두 번째는 이분법적 관점이라고 해서 이분법이 뭐니까?

00:06:36.580 --> 00:06:38.032
모 아니면 도.

00:06:38.132 --> 00:06:40.159
흑, 백 이런 것들이죠.

00:06:40.259 --> 00:06:40.711
맞죠?

00:06:40.811 --> 00:06:46.455
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을 어떤 조화로운 상호 의존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

00:06:46.555 --> 00:06:49.276
인간은 인간이오, 자연은 자연이다.

00:06:49.376 --> 00:06:52.579
이렇게 분리 독립시켜서 따로 보는 겁니다.

00:06:52.679 --> 00:06:53.270
이해되겠어?

00:06:53.370 --> 00:06:58.966
그래서 이분법, 인간과 자연을 엄격하게 분리, 독립시키는 거예요.

00:06:59.066 --> 00:06:59.950
구별을 하는 거죠.

00:07:00.050 --> 00:07:04.899
그래서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는 거죠.

00:07:04.999 --> 00:07:07.985
인간 따로, 자연 따로 보는 거예요.

00:07:08.085 --> 00:07:09.308
이해돼?

00:07:09.408 --> 00:07:12.870
다음 세 번째, 인간의 욕구를 위해서

00:07:12.970 --> 00:07:15.576
도구적 가치를 지니는 게 자연이다, 라는 거죠.

00:07:15.676 --> 00:07:20.110
그래서 자연의 유용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죠.

00:07:20.210 --> 00:07:21.616
유용성이라는 건 뭐니까?

00:07:21.716 --> 00:07:24.026
편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

00:07:24.126 --> 00:07:30.096
자연이 정말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
실용적 가치를 주느냐, 쓸모 있냐,

00:07:30.196 --> 00:07:34.986
개발이 가능하냐, 여기에
모든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.

00:07:35.086 --> 00:07:36.170
이해가 되죠?

00:07:36.270 --> 00:07:40.608
다음 네 번째, 이건 위험성이라든가
단점이 될 텐데요.

00:07:40.708 --> 00:07:43.036
이것도 쉬운데 별표.

00:07:43.136 --> 00:07:43.848
봐 봐.

00:07:43.948 --> 00:07:47.887
모든 걸 인간 중심주의적으로만
바라보다 보면

00:07:47.987 --> 00:07:49.790
당연히 자연을 남용하겠죠.

00:07:49.890 --> 00:07:52.690
그리고 마구마구 훼손시킬 겁니다.

00:07:52.790 --> 00:07:57.862
그 결과 우리가 맨날 배우는 환경오염
문제, 생태계 파괴 문제 등

00:07:57.962 --> 00:08:03.368
전 지구적인 생태 환경에 위기를
초래하게 되는 거죠, 맞죠?

00:08:03.468 --> 00:08:07.270
결국, 환경오염의 범위는
우리 인간들입니다.

00:08:07.370 --> 00:08:11.210
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의 가장
큰 단점이자 역기능은 뭐냐,

00:08:11.310 --> 00:08:12.963
환경파괴 문제예요.

00:08:13.063 --> 00:08:15.754
물론 자연을 개발하고 활용해서

00:08:15.854 --> 00:08:19.465
우리 인간들이 편하게 살 수
있다면 활용할 수 있죠.

00:08:19.565 --> 00:08:24.778
그런데 이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환경의
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.

00:08:24.878 --> 00:08:29.207

오로지 우리 인간들의
실용성과 편의성, 유용성.

00:08:29.307 --> 00:08:33.487

여기에만 모든 가치를 두는 거니까
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.

00:08:33.587 --> 00:08:36.181

그래서 편의성은 주었지만

00:08:37.234 --> 00:08:47.345

결국 전 지구적인 생태계 위기 문제에
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뭐냐,

00:08:47.445 --> 00:08:49.088

이 관점인 거예요.

00:08:49.188 --> 00:08:53.310

잘못된 관점 때문에 너무 지나친
도구적인 관점에 근거해서

00:08:53.410 --> 00:08:57.767

모든 자연을 개발하고 남용하고
훼손하다 보니까

00:08:57.867 --> 00:09:00.539

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.
이해되겠습니까?

00:09:00.639 --> 00:09:05.863

그래서 이런 인간 중심주의가 모든
생태계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고

00:09:05.963 --> 00:09:11.426

조금만 깊게 가르쳐드리면 환경
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

00:09:11.526 --> 00:09:16.682

이런 전통적인 인간 중심주의에서 이제는
그만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냐,

00:09:16.782 --> 00:09:18.954

아니 언제까지 도구로 취급할 거고

00:09:19.054 --> 00:09:22.447

언제까지 맨날 자연을
정복하려고만 할 거냐.

00:09:22.547 --> 00:09:27.707

인간과 생태 환경은 같이 더불어
살아가야 되는 것이다.

00:09:27.807 --> 00:09:30.160

그렇지 않게 되면 지구는 종말한다.

00:09:30.260 --> 00:09:31.171

그렇지 않아요?

00:09:31.271 --> 00:09:35.206

앞서 저희가 배웠던

사막화, 산성비, 온난화.

00:09:35.306 --> 00:09:39.528
엄청나게 많은 지구 생태계 위기
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.

00:09:39.628 --> 00:09:43.957
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
근본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.

00:09:44.057 --> 00:09:46.596
관점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.

00:09:46.696 --> 00:09:51.256
그래서 이 생태계의 근본 원인을
인간 중심주의로 보고 있으니까

00:09:51.356 --> 00:09:57.401
인간 중심주의에서 이제는
그만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.

00:09:57.501 --> 00:10:01.566
이걸 뭐라고 하느냐,
한 글자만 붙이면 돼.

00:10:01.666 --> 00:10:03.888
탈인간중심주의라고 하는 거죠.

00:10:03.988 --> 00:10:07.079
탈, 벗어나다, 이탈하다
할 때 탈 자야.

00:10:07.179 --> 00:10:11.567
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이제는
벗어날 때가 됐다는 거죠.

00:10:11.667 --> 00:10:15.856
그래서 이 탈인간중심주의가
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

00:10:15.956 --> 00:10:20.755
그중 저희 통합사회에서는 생태
중심주의만 배우는 거예요.

00:10:20.855 --> 00:10:21.676
아시겠죠?

00:10:21.776 --> 00:10:23.448
내용이 많지 않은 거죠, 사실.

00:10:23.548 --> 00:10:26.953
어려운 건 솔직히 동물
중심주의랑 생명 중심주의거든.

00:10:27.053 --> 00:10:30.810
그런데 그건 학년 올라가서
배우도록 합시다.

00:10:30.910 --> 00:10:37.982
그러면 탈인간중심주의의
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

00:10:38.082 --> 00:10:41.703
생태 중심주의도 한번 정리해볼게.

00:10:41.803 --> 00:10:44.653
갑니다, 생태 중심주의.

00:10:44.753 --> 00:10:50.750
첫 번째,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
유용성과 관계없이, 바로 이거죠.

00:10:51.348 --> 00:10:57.111
자연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
가치가 있다는 겁니다.

00:10:57.211 --> 00:11:02.548
다시 말씀드리면, 자연을 무조건
인간을 위한 도구라든가

00:11:02.648 --> 00:11:06.613
인간에게 정복당할 수단으로만
취급하지 마, 인마.

00:11:06.713 --> 00:11:08.192
이런 논리예요.

00:11:08.292 --> 00:11:11.269
자연 그 자체도 존중받을 가치가.

00:11:11.369 --> 00:11:17.381
즉 아까 썼던 표현을 빌려 쓰면
이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은

00:11:17.481 --> 00:11:21.902
자연 그 자체도 내재적 가치가
있다고 보는 겁니다.

00:11:22.002 --> 00:11:26.024
생태계도 살아있는 그런
생명체로 보자는 것이죠.

00:11:26.124 --> 00:11:29.586
그래서 조금만 더 어려운
말로 바꿔드리면

00:11:29.686 --> 00:11:35.854
이걸 유기체적 자연관이라고
해요, 유기체적 자연관.

00:11:35.954 --> 00:11:37.497
유기체가 뭐니까?

00:11:37.597 --> 00:11:40.784
기가 있는 몸이라는
뜻이거든요, 기가 있는 몸.

00:11:40.884 --> 00:11:44.074
다른 말로 생명체라는
거죠, 살아있는 생명체.

00:11:44.174 --> 00:11:49.200

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
거대한 자연 생태계도 하나의 뭐다?

00:11:49.300 --> 00:11:53.418
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겠냐,
이런 논리인 겁니다.

00:11:53.518 --> 00:11:55.134
이해되죠?

00:11:55.234 --> 00:11:57.138
그러면 특징들을 볼까요?

00:11:57.238 --> 00:12:03.763
1, 인간을 독립된 자연을 지배할
수 있는 우월한 존재가 아닌

00:12:03.863 --> 00:12:06.624
자연의 한 멤버로 인식을
하자, 라는 거죠.

00:12:06.724 --> 00:12:09.954
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적
관점을 거부하는 겁니다.

00:12:10.054 --> 00:12:14.507
인간이 제일 잘난 존재이다,
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지배자,

00:12:14.607 --> 00:12:20.186
인간만이 주인공, 이런 전통적인 인간
중심주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.

00:12:20.286 --> 00:12:21.447
이해되겠죠?

00:12:21.547 --> 00:12:22.891
다음 두 번째요.

00:12:22.991 --> 00:12:25.092
아까 제가 미리 알려드렸죠?

00:12:25.192 --> 00:12:31.582
전일주의, 지구 전체의 생태계가 하나의
살아있는 유기체, 라고 보는 거예요.

00:12:31.682 --> 00:12:35.360
그래서 전일론적 관점에 따라서
생태계 전체를

00:12:35.460 --> 00:12:38.016
도덕적으로 대우할 필요가 있는 거죠.

00:12:38.116 --> 00:12:42.342
단순한 도구라든가 수단이
아니니까요, 이해가 되나?

00:12:42.442 --> 00:12:47.267
다음에 세 번째, 결국 인간과
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

00:12:47.367 --> 00:12:50.619

인간과 자연의
상호의존성과 상호보완성.

00:12:50.719 --> 00:12:55.474

그리고 인간과 자연 전체의
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관점이

00:12:55.574 --> 00:12:58.969

생태 중심주의가 되는 거예요.

00:12:59.069 --> 00:13:01.954

그런데 역시나 비판적인
한계점이 있죠.

00:13:02.054 --> 00:13:03.422

이 4번이 별표입니다.

00:13:03.522 --> 00:13:05.582

이거 잘 봐 봐요.

00:13:05.682 --> 00:13:10.161

생태 중심주의는 어쨌든 전체주의죠.

00:13:10.261 --> 00:13:14.193

즉 전체 안에 들어가
있는 개체들보다

00:13:14.293 --> 00:13:17.666

전체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
있다, 이걸 말하는 것이거든요.

00:13:17.766 --> 00:13:23.917

그러니까 개체보다 생태계 전체의
이익을 중시하다 보니까,

00:13:24.017 --> 00:13:29.164

이게 좀 어려운 말일 텐데 이른바
환경 파시즘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.

00:13:29.264 --> 00:13:32.035

이건 씹히는 거예요,
비판받는 부분입니다.

00:13:32.627 --> 00:13:35.346

파시, 뭐죠?

00:13:35.446 --> 00:13:36.941

전체주의죠.

00:13:37.041 --> 00:13:39.669

독일의 나치, 이탈리아의 파시.

00:13:39.769 --> 00:13:44.707

즉 전체주의적 관점이다, 라는 것인데
전체주의는 아마 대충은 알 겁니다.

00:13:44.807 --> 00:13:46.948

예를 들면 이런 거죠.

00:13:47.048 --> 00:13:53.316

전체가 있고 전체 안에
이런 개체들이 있다면

00:13:53.416 --> 00:13:56.808

개체가 목적인 거예요,
전체가 목적인 거예요?

00:13:56.908 --> 00:13:58.418

전체가 목적인 겁니다.

00:13:58.518 --> 00:14:00.527

그러니까 이걸 역사적으로
말씀을 드리면,

00:14:00.627 --> 00:14:04.333

그러니까 나치즘같이 말씀을
드리면 이 전체가 뭘까요?

00:14:04.433 --> 00:14:09.064

대독일제국이 되는 것이고 이 안에
들어가는 개체들이 뭘까요?

00:14:09.164 --> 00:14:10.777

독일 국민을 말하는 것입니다.

00:14:10.877 --> 00:14:15.113

그러니 전체주의는 개체보다
전체가 우선이니까

00:14:15.213 --> 00:14:18.344

히틀러의 그 유명한 말, 뭐예요?

00:14:18.444 --> 00:14:21.205

국가 없이는 국민도 없다.

00:14:21.305 --> 00:14:26.009

그러니 독일의 청년들이여 지금
당장 스탈린그라드로 고고싱.

00:14:26.109 --> 00:14:26.880

무슨 뜻이에요?

00:14:26.980 --> 00:14:28.608

전쟁에 나가라는 겁니다.

00:14:28.708 --> 00:14:32.240

국가를 위해서 너희가 죽는
건 영광이야, 인마.

00:14:32.340 --> 00:14:33.417

이런 논리죠.

00:14:33.517 --> 00:14:35.167

이건 진짜 무서운 사고방식입니다.

00:14:35.267 --> 00:14:38.900

아니면 자기가 뛰어가든가 왜
남한테 뛰어가라고 그래요?

00:14:39.000 --> 00:14:39.849

그렇잖아요.

00:14:39.949 --> 00:14:42.536

물론 국가가 없으면 국민도
없을 수 있습니다.

00:14:42.636 --> 00:14:45.438

그런데 국민이 있으니까
국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?

00:14:45.538 --> 00:14:46.462

그렇지 않나요?

00:14:46.562 --> 00:14:48.835

개체들이 있으니까 전체가
존재하는 거죠.

00:14:48.935 --> 00:14:50.924

이렇게 비판받는 겁니다.

00:14:51.024 --> 00:14:56.337

이건 완전히 전체주의적
환경윤리라고 씹힐 수밖에 없죠.

00:14:56.437 --> 00:15:00.874

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견
학년 올라가면 배울 텐데 봐 봐.

00:15:00.974 --> 00:15:09.034

이 전체주의가 왜 무섭냐, 예를
들어서 토끼라는 동물이 있죠.

00:15:09.134 --> 00:15:15.864

그리고 토끼풀이라는 식물이
있습니다, 맞잖아?

00:15:15.964 --> 00:15:21.434

그런데 가령 토끼라는 동물이
갑자기 배가 너무 많이 고파져서

00:15:21.534 --> 00:15:25.386

토끼풀들을 심하게 뜯어 먹고
있다고 한번 쳐볼게요.

00:15:25.486 --> 00:15:29.618

그러면 이걸 인간들이
통제하거나 제어해주지 않으면

00:15:29.718 --> 00:15:34.853

예를 들어서 토끼풀이 멸종될
위기에 처했다고 칠게요.

00:15:34.953 --> 00:15:37.072

토끼는 절제할 수가
없잖아, 동물이니까.

00:15:37.172 --> 00:15:38.615

그냥 계속 다 뜯어먹을 거 아니냐.

00:15:38.715 --> 00:15:42.167

그러면 토끼풀이 멸종이 다 되겠죠?

00:15:42.267 --> 00:15:45.044

그러면 멸종이 된다면
어떻게 될까요?

00:15:45.144 --> 00:15:47.648

그럼요, 토끼도 멸종이
되는 겁니다.

00:15:47.748 --> 00:15:49.699

왜?
먹을 풀이 없으니까.

00:15:49.799 --> 00:15:52.807

그러면 토끼풀 다 없어지고
토끼 다 없어지면

00:15:52.907 --> 00:15:57.102

생태계에 어떤 안전한 그물망,
그 생태 그물망이라든가

00:15:57.202 --> 00:16:03.377

생태계 전체에 어떤 조화로운 균형
잡힌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죠.

00:16:03.477 --> 00:16:04.301

그렇잖아요.

00:16:04.401 --> 00:16:07.628

어떤 동물 종과 식물
종이 하나가 없어지면

00:16:07.728 --> 00:16:10.522

이 균형 잡힌 생태계
전체의 그물망.

00:16:10.622 --> 00:16:13.549

이 먹이사슬망, 이게
무너질 수가 있습니다.

00:16:13.649 --> 00:16:15.080

이건 사실이에요.

00:16:15.180 --> 00:16:15.674

그렇죠?

00:16:15.774 --> 00:16:20.303

그래서 이 전체주의적 관점에
있는 분들은 뭐라고 말하느냐,

00:16:20.403 --> 00:16:21.947

정말로 이렇게 말합니다.

00:16:22.047 --> 00:16:24.566

만약에 토끼가 토끼풀을
너무 심하게 먹어서

00:16:24.666 --> 00:16:30.368

토끼풀이 멸종위기에 처한다면
그때는 토끼를 죽이라 그래요.

00:16:30.468 --> 00:16:35.526

그게 토끼를 결국에는 살리는 일이고
토끼풀, 토끼가 다 살아야

00:16:35.626 --> 00:16:40.637
이 전 생태계의 균형 잡힌 그런
생태계도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니냐.

00:16:40.737 --> 00:16:41.877
이런 논리인 겁니다.

00:16:41.977 --> 00:16:48.017
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의
균형성과 안정성을 위해서

00:16:48.650 --> 00:16:57.705
개체의 희생을 부당하게 강요할
수 있는 거죠, 이해가 돼?

00:16:57.805 --> 00:17:00.791
더 급진적으로 말해볼까?

00:17:00.891 --> 00:17:02.439
봐.

00:17:02.539 --> 00:17:06.781
만약에 인간이 토끼를 먹으면
몸에 좋대, 이런 소문이 나서

00:17:06.881 --> 00:17:09.600
미친 듯이 토끼를
잡아먹는다고 치겠습니까.

00:17:09.700 --> 00:17:13.564
그러면 인간들이 토끼를 많이 먹게
되면 토끼가 또 멸종되겠죠?

00:17:13.664 --> 00:17:14.110
그렇죠?

00:17:14.210 --> 00:17:18.056
그러면 전체주의적 관점에서는
믿기지 않겠지만 뭐라고 그러게?

00:17:18.156 --> 00:17:20.226
그래요, 인간을 죽이자 그래요.

00:17:20.326 --> 00:17:24.318
그래야지만 생태계의 조화가 계속
유지가 될 수 있지 않겠냐,

00:17:24.418 --> 00:17:27.730
전체를 위해서 개체의
희생은 어쩔 수 없다.

00:17:27.830 --> 00:17:30.076
독일 제국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

00:17:30.176 --> 00:17:32.576
너희가 전쟁 나가서 죽는 건
어쩔 수 없어.

00:17:32.676 --> 00:17:37.247
독일제국이 먼저잖아, 이게
전체주의고 이게 파시즘이거든요.

00:17:37.347 --> 00:17:38.418
이해가 돼?

00:17:38.518 --> 00:17:44.757
이런 비판점을 받는 것이 바로 생태
중심주의의 크나큰 약점인 거죠.

00:17:44.857 --> 00:17:45.460
이해가 되죠?

00:17:45.560 --> 00:17:48.122
그래서 완벽한 관점은 없어요.

00:17:48.222 --> 00:17:50.450
그래서 우리 교과서에
마지막 테마가 뭘니까?

00:17:50.550 --> 00:17:54.146
인간 중심주의하고 이
생태 중심주의의

00:17:54.246 --> 00:17:59.977
적절한 균형 잡힌 시각과
관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.

00:18:00.077 --> 00:18:02.382
인간도 소중합니다.

00:18:02.482 --> 00:18:06.690
인간들 자연 개발하면서
편하게 살아야죠.

00:18:06.790 --> 00:18:11.030
그런데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만
자연을 도구 취급하면

00:18:11.130 --> 00:18:12.735
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.

00:18:12.835 --> 00:18:16.528
그래서 마지막 테마가 인간과
자연의 공존인 거죠.

00:18:16.628 --> 00:18:21.542
다시 말씀드리면
조화론적 자연관입니다.

00:18:23.110 --> 00:18:24.237
이해되지?

00:18:24.337 --> 00:18:25.865
내용은 쉬워, 봐 봐.

00:18:25.965 --> 00:18:32.706
1, 우리 인간은 생태계를 구성하는
하나의 멤버구나, 라는 걸 깨닫고

00:18:32.806 --> 00:18:38.763
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자연을
정복할 수 있는 지배자다.

00:18:38.863 --> 00:18:41.782
이런 사고방식은 버려,
라는 거예요.

00:18:41.882 --> 00:18:44.543
공존, 공생을 강조하는
관점이 되는 거죠.

00:18:44.643 --> 00:18:47.219
더불어 같이 살자, 라는 거죠.

00:18:47.319 --> 00:18:51.682
그런 환경친화적 가치관을 키울
필요가 당연히 있겠죠, 그렇죠?

00:18:51.782 --> 00:18:54.517
다음 두 번째요, 별표.

00:18:54.617 --> 00:18:59.917
이것도 학년 올라가면 생활과 윤리에서
깊이 있게 배울 거야, 봐 봐.

00:19:00.017 --> 00:19:03.333
지금 지구를 우리가 이용하고
있잖아, 현세대가.

00:19:03.433 --> 00:19:04.157
그렇죠?

00:19:04.257 --> 00:19:06.639
너희나 나나 지금 현세대입니다.

00:19:06.739 --> 00:19:08.892
지구를 이용하고 있는
건 지금 저희잖아요.

00:19:08.992 --> 00:19:12.533
그런데 이제 앞으로
태어날 미래 세대.

00:19:12.633 --> 00:19:16.480
그러니까 우리 후손들, 이런
미래 후손까지 생각하는

00:19:16.580 --> 00:19:19.026
능동적인 책임의 의식도
필요한 겁니다.

00:19:19.126 --> 00:19:25.152
그러니 자연환경을 우리 현세대의
이익을 위해서만 마구마구 개발하면

00:19:25.252 --> 00:19:30.601
미래 세대와 후손들은 깨끗한 지구에서
살 권리를 박탈당하는 겁니다.

00:19:30.701 --> 00:19:31.405

그렇잖아요.

00:19:31.505 --> 00:19:34.176

영화 인터스텔라, 그게
현실화될 수 있는 거죠.

00:19:34.276 --> 00:19:38.713

제2의 지구, 제3의 지구를
찾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.

00:19:38.813 --> 00:19:39.650

이해되죠?

00:19:39.750 --> 00:19:44.768

후손과 미래 세대를 고려해야 되는 건
우리 현세대의 당연한 책임인 거죠.

00:19:44.868 --> 00:19:46.855

그래서 이걸 그냥 학자
이름만 적어줄게.

00:19:46.955 --> 00:19:50.032

한스 요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,
독일의 철학자인데요.

00:19:50.132 --> 00:19:57.200

이 한스 요나스가 이런 미래 세대와
우리의 후손 세대들을 고려하기 위한

00:19:57.300 --> 00:20:01.948

그런 생태학적 환경 윤리를 바로 책임
윤리, 라고 그래요, 책임 윤리.

00:20:02.048 --> 00:20:05.386

현세대들은 반드시 이
지구를 보존해야 될

00:20:05.486 --> 00:20:08.454

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
책임의식이 요구된다.

00:20:08.554 --> 00:20:12.377

그런 시대에서 우리가
살고 있다는 것입니다.

00:20:12.477 --> 00:20:14.028

아시겠죠?

00:20:14.128 --> 00:20:20.835

다음 세 번째, 서양의 관점보다는
우리 동양의 자연관을 계승하자.

00:20:20.935 --> 00:20:23.647

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
추구해보자, 라는 거죠.

00:20:23.747 --> 00:20:27.095

왜냐하면, 이것도 깊이
있게까지는 안 들어갈 텐데

00:20:27.195 --> 00:20:34.279

동양의 자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의
3대 철학인 유학, 불교, 도가.

00:20:34.379 --> 00:20:37.430

이 유, 불, 도 관점의
공통점이 뭐냐,

00:20:37.530 --> 00:20:40.918

바로 인간과 자연환경의
조화를 추구하는 겁니다.

00:20:41.018 --> 00:20:47.039

그래서 서양의 인간 중심주의는 이제
그만 좀 갖다 버리고, 지양하고

00:20:47.192 --> 00:20:50.846

인간과 자연의 어떤 친화적인
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는

00:20:50.946 --> 00:20:56.786

동양철학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서
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생겼다는 거죠.

00:20:56.886 --> 00:20:57.274

맞죠?

00:20:57.374 --> 00:21:01.804

그래서 유불도의 자연관을 계승할
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

00:21:01.904 --> 00:21:03.216

다음 네 번째요.

00:21:03.316 --> 00:21:07.513

효율성, 경제성, 유용성,
실용성, 쓸모 있음.

00:21:07.613 --> 00:21:12.164

이런 가치보다는 인간과 자연의
공존, 공생을 강조하는

00:21:12.264 --> 00:21:14.504

그런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.

00:21:14.604 --> 00:21:16.391

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니까?

00:21:16.491 --> 00:21:21.402

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자,
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.

00:21:21.502 --> 00:21:22.573

되죠?

00:21:22.673 --> 00:21:28.787

마지막 다섯 번째, 모든 문제를 과학
기술로 다 해결할 수 있어, 라는

00:21:28.887 --> 00:21:32.862

어떤 과학만능주의, 이런
사고방식도 경계해야죠.

00:21:32.962 --> 00:21:35.962

이게 요나스의 책임 윤리
내용 중 하나거든요.

00:21:36.062 --> 00:21:39.564

이걸 어려운 말로 베이컨적
프로그램 비판이라고 그래요.

00:21:39.664 --> 00:21:44.389

영국의 과학자이면서 철학자
중에 프랜시스 베이컨.

00:21:44.489 --> 00:21:49.129

아마 너희가 들어본 말은 아는 것이
힘이다, 그 과학자입니다, 베이컨.

00:21:49.229 --> 00:21:52.227

베이컨이 과학 만능주의자거든요.

00:21:52.327 --> 00:21:56.093

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전부 다 그냥
과학 기술로 다 해결할 수 있어,

00:21:56.193 --> 00:22:00.189

걱정하지 마, 과학만이 살길이야,
이게 베이컨적 관점.

00:22:00.289 --> 00:22:03.222

이른바 베이컨적
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

00:22:03.322 --> 00:22:07.057

모든 걸 과학으로 다
해결해줄게, 라는 과학만능주의.

00:22:07.157 --> 00:22:10.777

또는 과학 지상주의에 대해서
경고 메시지를 날린 분이

00:22:10.877 --> 00:22:12.140

이 독일의 요나스예요.

00:22:12.240 --> 00:22:14.930

그래서 요나스의 책임의 윤리학이

00:22:15.030 --> 00:22:19.161

이런 베이컨적 과학만능주의의
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거죠.

00:22:19.261 --> 00:22:24.861

정말로 과학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
수 있냐, 이거는 망상입니다.

00:22:24.961 --> 00:22:28.618

물론 과학으로 문제를 많이 해결할
수 있고 해결하고 있죠.

00:22:28.718 --> 00:22:31.048

그런데 이 환경오염
문제 같은 경우는

00:22:31.193 --> 00:22:36.751

정말로 과학기술로 모든 문제를
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.

00:22:36.851 --> 00:22:38.754

그걸 증명해주는 영화가 있잖아.

00:22:38.854 --> 00:22:43.836

이건 제가 현장 강의할 때 애들한테
많이 이야기하는데 잠깐만 해볼까?

00:22:44.766 --> 00:22:46.770

이게 지구야.

00:22:47.573 --> 00:22:51.378

이건 많이 봤을 걸, 되게
유명한 영화였잖아요.

00:22:51.478 --> 00:22:54.242

이야기해드릴까요?

00:22:54.657 --> 00:22:59.779

제 기억에 그 영화
첫 신이 어떤 고장 나고

00:22:59.879 --> 00:23:04.035

부서진 TV가 지직 하면서
뉴스가 나옵니다.

00:23:04.135 --> 00:23:06.533

그 뉴스 내용이 이래요.

00:23:06.633 --> 00:23:10.395

지구온난화 현상이 너무
가속화되어서 북극,

00:23:10.495 --> 00:23:12.943

남극 다 녹았다,
큰일 났다, 지금.

00:23:13.043 --> 00:23:18.343

바닷물 불어서 지구 잠기고 있고
큰일 났다, 지구 종말이 다가온다.

00:23:18.443 --> 00:23:20.133

이런 뉴스 보도가 나와.

00:23:20.233 --> 00:23:25.255

그리고 또 지직 하면서 전
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

00:23:25.355 --> 00:23:30.726

이 달궈지고 있는 이 찜질방 같은
지구를 어떻게 식힐 수 있을까.

00:23:30.826 --> 00:23:37.158

그 대안으로 나온 게
우주선을 발사해서

00:23:38.001 --> 00:23:47.035

거꾸로 이 팔팔 끓는 지구에 냉각
가스를 아주 기술적으로 쏜다면

00:23:47.135 --> 00:23:50.327

냉각 가스를 발사하면
식을 거 아니에요.

00:23:50.427 --> 00:23:53.181

이거 정말로 과학
기술적인 발상이죠?

00:23:53.281 --> 00:23:57.242

이런 노력을 기울였다
또 뉴스 지직 하면서.

00:23:57.342 --> 00:24:00.564

그런데 웃긴 게 가스를
너무 많이 쏘나

00:24:00.664 --> 00:24:04.873

아니면 계산 착오로 지구에 이
냉각 가스를 너무 많이 쏘서

00:24:04.973 --> 00:24:10.960

지구가 다 얼어버렸다, 이렇게
시작되는 영화입니다.

00:24:11.060 --> 00:24:12.217

대충 아시겠죠?

00:24:12.317 --> 00:24:14.849

설국열차 영화 첫 신이네요.

00:24:14.949 --> 00:24:17.568

과학기술 만능주의가
가지고 올 수 있는

00:24:17.668 --> 00:24:22.416

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런 걸 말하고
싶은 겁니다, 이해되겠죠?

00:24:22.516 --> 00:24:27.164

분명히 과학자 베이컨이 지금 살아계신다면
이런 발상을 하셨을 거예요.

00:24:27.264 --> 00:24:32.016

지구 뜨거워진다고?
걱정하지 마, 내가 식혀줄게, 기술 만들어줄게.

00:24:32.116 --> 00:24:34.680

이게 베이컨적 관점인 거죠.

00:24:34.780 --> 00:24:39.618

이게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을
가져다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.

00:24:39.718 --> 00:24:41.643

이해가 되죠, 무슨 말인지?

00:24:41.743 --> 00:24:45.491

그러니 과학기술로 모든

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.

00:24:45.591 --> 00:24:48.881
그런 망상은 버리고 인간 중심주의로

00:24:48.981 --> 00:24:52.474
모든 걸 다 바라보는
잘못된 관점이 문제니까

00:24:52.574 --> 00:24:57.102
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지
않겠냐, 이걸 배우는 거야.

00:24:57.202 --> 00:24:58.813
아시겠죠?

00:24:58.913 --> 00:25:02.620
이게 인간과 자연의 관점
내용이 되겠습니다.

00:25:02.720 --> 00:25:06.353
다음에 저희 교안 보시면
이제 내신 시험에서

00:25:06.453 --> 00:25:11.346
이 각 사상가의 약간은 깊이 있는
내용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

00:25:11.446 --> 00:25:14.618
제가 수능 개념을 좀 붙여놨습니다.

00:25:14.718 --> 00:25:17.308
참고로 한번 간단하게 볼게.

00:25:17.408 --> 00:25:23.910
동서양의 자연관인데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
앞서서 몇 번 만나봤죠?

00:25:24.010 --> 00:25:25.832
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데요.

00:25:25.932 --> 00:25:28.987
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
인간 중심주의입니다.

00:25:29.087 --> 00:25:31.361
인간 중심주의인데 봐 봐.

00:25:31.461 --> 00:25:34.141
어려운 말로 목적론적
자연관이라고 그래요.

00:25:34.241 --> 00:25:37.366
그리고 도구적인 자연관은
앞서 계속 배웠죠?

00:25:37.466 --> 00:25:39.732
자연은 도구와 수단에 불과하다.

00:25:39.832 --> 00:25:45.413
그래서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

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 있는데요.

00:25:45.513 --> 00:25:48.951

그 대표 워딩이, 그
실제 어록이 이거예요.

00:25:49.051 --> 00:25:51.693

이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.

00:25:51.793 --> 00:25:56.452

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는 게
이 자연의 섭리라는 거예요.

00:25:56.552 --> 00:25:59.944

그러니까 아까 제가 들은
예를 다시 한번 살리면

00:26:00.044 --> 00:26:07.561

토끼풀이라는 건 처음부터 토끼한테
먹히려고 존재하는 게 이 자연의 섭리다.

00:26:07.661 --> 00:26:09.436

이런 논리입니다.

00:26:09.536 --> 00:26:11.509

그러면 두 번째 문장 봐 봐.

00:26:11.609 --> 00:26:13.888

그런데 이 동물은 정작
누굴 위해 존재한데?

00:26:13.988 --> 00:26:15.973

우리 인간들을 위해
존재하는 거 아니냐.

00:26:16.073 --> 00:26:20.731

그러니 토끼풀은 토끼한테
먹히려고 처음부터 존재하는 거고

00:26:20.831 --> 00:26:22.831

그런데 그 토끼도 누구한테요?

00:26:22.931 --> 00:26:27.206

우리 인간들에게 먹히려고 또는
이용당하려고 존재하는 것이

00:26:27.306 --> 00:26:28.957

이 자연의 섭리야, 라는 겁니다.

00:26:29.057 --> 00:26:34.185

그러니 결국 궁극적으로 봤을
때는 식물이고 동물이고

00:26:34.285 --> 00:26:37.138

이 자연환경은 전부 다 누굴
위해 존재하는 겁니까?

00:26:37.238 --> 00:26:41.434

그럼요,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.

00:26:41.534 --> 00:26:46.660

이게 자연의 섭리야, 이게
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인 거죠.

00:26:46.760 --> 00:26:47.330
이해 되죠?

00:26:47.430 --> 00:26:53.678
결국 우리 인간이 바로 궁극적
목적이 되는 거죠, 정리되지?

00:26:53.778 --> 00:26:57.822
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관은
이렇게 되고요.

00:26:57.922 --> 00:27:00.983
다음에 두 번째 인간 중심주의자

00:27:01.083 --> 00:27:04.025
아까 제가 말씀드렸던
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.

00:27:04.125 --> 00:27:08.165
근대 영국 경험주의
철학자면서 과학자이시죠?

00:27:08.265 --> 00:27:12.243
가장 대표적인 워딩,
아는 것이 힘이다.

00:27:13.210 --> 00:27:17.365
이 문장은 불완전 문장 같은
건데, 생략되어있는 말이 있는데

00:27:17.465 --> 00:27:22.734
조금만 깊게 가르쳐주면
첫 번째는 뭐가 생략되어있느냐.

00:27:22.834 --> 00:27:26.265
베이컨은 이런 사고방식인 거예요.

00:27:28.430 --> 00:27:30.716
우리 인간들을 둘러싸고 있는

00:27:30.816 --> 00:27:36.188
자연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기술을
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죠.

00:27:36.288 --> 00:27:40.013
이 자연정복 기술,
두 글자로 뭘까요?

00:27:40.113 --> 00:27:42.697
그럼요, 과학이죠, 뭐.

00:27:42.797 --> 00:27:43.858
그렇죠?

00:27:43.958 --> 00:27:45.727
그러면 이걸 누구의
힘이라는 걸까요?

00:27:45.827 --> 00:27:49.666

여기에 생략되어있는 말은
당연히 이 말이겠죠?

00:27:51.004 --> 00:27:52.651

바로 이거예요.

00:27:52.751 --> 00:27:55.436

only 인간, 이해돼?

00:27:55.536 --> 00:27:58.949

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을
정복할 수는 있는 건

00:27:59.049 --> 00:28:02.717

오로지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
있는 슈퍼파워라는 겁니다.

00:28:02.817 --> 00:28:05.095

그래서 인간이 제일 잘났다는 거죠.

00:28:05.195 --> 00:28:05.766

그렇잖아요.

00:28:05.866 --> 00:28:10.296

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멧돼지하고

00:28:10.396 --> 00:28:13.941

인간하고 1대1로
맞싸우면 우리가 죽어요.

00:28:14.041 --> 00:28:17.219

우리는 멧돼지랑 맞싸워서
이길 수가 없습니다.

00:28:17.319 --> 00:28:18.310

그렇잖아요.

00:28:18.410 --> 00:28:21.011

그런데 우리는 멧돼지보다 잘났죠.

00:28:21.111 --> 00:28:22.749

여러 면에서 잘났죠.

00:28:22.849 --> 00:28:26.289

첫 번째, 지금 촬영하고
있는 기간이 겨울입니다.

00:28:26.389 --> 00:28:28.049

밖이 되게 추워요.

00:28:28.149 --> 00:28:35.217

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겨울철에 춥다는
이유로 땅 파서 잠만 잡니까?

00:28:35.317 --> 00:28:38.574

활동도 하고 촬영도 하고
PC방도 가고 놀잖아.

00:28:38.674 --> 00:28:39.605

그렇잖아?

00:28:39.705 --> 00:28:42.915

그런데 멧돼지 등 다른
동물들은 뭐합니까?

00:28:43.015 --> 00:28:44.340

두 달 내내 잠만 자야 됩니다.

00:28:44.440 --> 00:28:45.256

왜?

00:28:45.356 --> 00:28:47.961

그 추운 겨울을 극복할 수는
있는 기술이 없잖아요.

00:28:48.139 --> 00:28:51.067

이게 인간과 동물의
근본적인 차이점이죠.

00:28:51.167 --> 00:28:53.034

베이컨은 여기에 주목하는 겁니다.

00:28:53.134 --> 00:28:56.139

인간만이 자연을 지배하고
정복할 수 있는 거죠.

00:28:56.239 --> 00:29:00.461

그런데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들은
자연을 지배,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

00:29:00.561 --> 00:29:05.934

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에 그냥
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죠.

00:29:06.034 --> 00:29:07.424

이해가 되겠죠?

00:29:07.524 --> 00:29:11.518

과학기술만이 우리 인간들이
가지고 있는 슈퍼파워.

00:29:11.618 --> 00:29:12.115

되죠?

00:29:12.215 --> 00:29:17.102

그래서 이 자연 과학적인 지식에
유용성을 강조하는 게 베이컨입니다.

00:29:17.202 --> 00:29:19.238

과학자 답죠?

00:29:19.338 --> 00:29:21.335

그래서 실제 워당은 봐 봐.

00:29:21.435 --> 00:29:23.665

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하라.

00:29:23.765 --> 00:29:26.370

그래서 자연을 노예로 만들어라.

00:29:26.470 --> 00:29:30.540

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노예로 만들어라.

00:29:31.148 --> 00:29:32.773
다음 되게 무서운 말인데요.

00:29:32.873 --> 00:29:37.677
과학자의 목적은 고문해서라도 자연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다.

00:29:38.692 --> 00:29:42.175
그만큼 과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뭘니까?

00:29:42.275 --> 00:29:46.643
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만들어서

00:29:46.743 --> 00:29:50.687
우리 인간들에게 유용성과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것이

00:29:50.787 --> 00:29:56.074
과학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, 이걸 완벽히 과학만능주의입니다.

00:29:56.174 --> 00:29:57.338
맞죠?

00:29:57.438 --> 00:30:00.334
그래서 인간의 의도대로 자연을 이용하기 위해서

00:30:00.434 --> 00:30:04.500
자연의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시키는 거죠.

00:30:04.600 --> 00:30:06.565
뻗속까지 인간 중심주의죠.

00:30:06.665 --> 00:30:12.715
그래서 베이컨을 다른 말로 정복 지향적 자연관이라고도 해요.

00:30:12.815 --> 00:30:18.052
얼마든지 인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자연을 정복할 수 있지 않냐.

00:30:18.152 --> 00:30:21.772
그래서 정복 지향적 자연관이라고 합니다.

00:30:21.872 --> 00:30:23.415
되겠죠?

00:30:23.515 --> 00:30:25.399
베이컨까지 봤고요.

00:30:25.499 --> 00:30:31.045
다음에 세 번째 인간 중심주의자는 역시나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?

00:30:31.145 --> 00:30:32.765
프랑스의 수학자입니다.

00:30:32.865 --> 00:30:34.030
철학자이기도 하고요.

00:30:34.130 --> 00:30:36.671
르네 데카르트가 되겠습니다.

00:30:36.771 --> 00:30:39.304
데카르트가 이분법적 관점이거든요.

00:30:39.404 --> 00:30:44.720
인간과 자연을 분리, 독립시켜서
자연보다 인간이 훨씬 더 잘났다.

00:30:44.820 --> 00:30:48.884
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영혼과
이성을 지니고 있지 않냐

00:30:48.984 --> 00:30:52.918
반면에 자연은 물질적인
재료에 불과하다.

00:30:53.018 --> 00:30:55.694
동물과 식물에 무슨
이성과 영혼이 있느냐.

00:30:55.794 --> 00:30:59.121
그러니 정신과 이성과
영혼을 지니고 있는

00:30:59.221 --> 00:31:04.320
우리 인간들이 가장 잘났다,
이게 데카르트의 견해입니다.

00:31:04.420 --> 00:31:07.794
두 번째로는 데카르트의
가장 유명한 이론이죠?

00:31:07.894 --> 00:31:11.582
이른바 동물 기계론이라고
해서 제목 그대로입니다.

00:31:11.682 --> 00:31:17.929
동물은 물질적인 재료들로 구성되어있는
그냥 정교한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.

00:31:18.029 --> 00:31:22.462
동물은 기계니까 영혼도 없고 정신도
없고 이성도 없는 거예요.

00:31:22.562 --> 00:31:26.578
그래서 동물은 그냥 본능적으로
마치 프로그래밍 되어있는

00:31:26.678 --> 00:31:30.583
기계처럼 그냥 살다가 가는
것이다, 라고 보는 거죠.

00:31:30.683 --> 00:31:31.097
되죠?

00:31:31.197 --> 00:31:34.154
그래서 동물은 하느님께서
만드신 기계에 불과해.

00:31:34.254 --> 00:31:36.380
고통도 느끼지 못해, 감정도 없고

00:31:36.480 --> 00:31:42.153
정신, 이성, 영혼 아무것도 없는
그냥 물질적인 재료에 불과한 존재.

00:31:42.253 --> 00:31:45.649
이게 동물 기계론의 개념인 거죠.

00:31:45.749 --> 00:31:48.783
인간들은 영혼과 육체가
결합되어있지만

00:31:48.883 --> 00:31:54.027
동물은 그냥 물질적인 것들로만
결합되어있는 기계로 바라보는 겁니다.

00:31:54.127 --> 00:31:59.168
역시나 인간 중심주의에
해당이 되는 거죠, 됐죠?

00:31:59.268 --> 00:32:02.546
인간 중심주의자
세 분을 만나봤고요.

00:32:02.646 --> 00:32:07.772
그러면 네 번째가 이제 생태
중심주의자의 끝판왕이신 레오폴드.

00:32:07.872 --> 00:32:11.216
알도 레오폴드, 이 분입니다.

00:32:11.847 --> 00:32:13.353
전일주의입니다.

00:32:13.453 --> 00:32:14.895
생태 중심주의니까요.

00:32:14.995 --> 00:32:18.248
그래서 이분이 대지의
윤리라고 하는 것이고

00:32:18.348 --> 00:32:22.232
여기서 말하는 대지가 뭐냐,
이 거대한 대지 공동체.

00:32:22.332 --> 00:32:24.993
그러니까 생태계 전체를
말하는 것이죠.

00:32:25.093 --> 00:32:31.707
생태계 전체도 도덕적인 고려와
배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.

00:32:31.807 --> 00:32:32.533
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.

00:32:32.633 --> 00:32:36.244
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에서
벗어나자는 것이

00:32:36.344 --> 00:32:39.585
이 레오폴드 아저씨의 견해인 거죠.

00:32:40.381 --> 00:32:48.778
인간, 동물, 식물뿐만 아니라 땅,
물과 같은 이른바 무생물이죠, 이걸.

00:32:50.108 --> 00:32:52.928
토양과 물은 살아있는 건
아니잖아, 그렇지?

00:32:53.028 --> 00:32:56.360
인간, 동물, 식물 이걸 기본이요.

00:32:56.460 --> 00:32:58.529
무생물까지 전부 다 우리가

00:32:58.629 --> 00:33:01.025
존중하고 배려해야
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.

00:33:01.125 --> 00:33:04.864
그러니까 무생물까지 전부 다 배려할
그런 책임을 강조하는 것.

00:33:04.964 --> 00:33:09.994
이게 레오폴드, 생태 중심주의의
특징 중에 하나죠.

00:33:10.094 --> 00:33:10.970
다음요.

00:33:11.070 --> 00:33:13.994
인간은 지배자, 인간은
주인공이 아니라

00:33:14.094 --> 00:33:17.563
이 대지 공동체에 하나의
멤버에 불과하다.

00:33:17.663 --> 00:33:23.432
인간, 동물, 식물, 무생물 다 생태계
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.

00:33:23.532 --> 00:33:25.752
이렇게 보는 겁니다.

00:33:25.852 --> 00:33:26.419
되죠?

00:33:26.519 --> 00:33:27.994
그래서 네 번째요.

00:33:28.094 --> 00:33:33.357
독립적인 개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
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관계

00:33:33.457 --> 00:33:35.349
그리고 조화에 주목하는 것이예요.

00:33:35.449 --> 00:33:37.668
다 똑같은 말은 하고 싶은 거죠.

00:33:37.768 --> 00:33:39.341
그 똑같은 말이 됩니까?

00:33:39.441 --> 00:33:42.990
인간 중심주의를 거부하는 겁니다.

00:33:43.090 --> 00:33:43.612
이해되겠죠?

00:33:43.712 --> 00:33:48.111
물론 이 관점도 씹히고 비판점은 있어,
파시즘이라고 욕먹잖아, 그렇지?

00:33:48.211 --> 00:33:53.096
그런데 인간 중심주의하고 다른
특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

00:33:53.196 --> 00:33:53.689
아시겠죠?

00:33:53.789 --> 00:33:56.033
그래서 양쪽의 관점을 다 배워서

00:33:56.133 --> 00:33:59.903
가장 조화로운 절충적 관점이
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,

00:34:00.003 --> 00:34:04.365
이걸 한번 생각해볼래, 라는 게
이 교과서의 취지인 겁니다.

00:34:04.465 --> 00:34:05.725
아시겠죠?

00:34:05.825 --> 00:34:14.328
심화 자료도 한번 봤고 이제 퀴즈
한번 해보고 마무리시켜드릴게요.

00:34:16.101 --> 00:34:17.404
해보자.

00:34:17.504 --> 00:34:19.173
1, 연결해봐라.

00:34:19.273 --> 00:34:22.192
그런데 문제가 좀
쉬워서 죄송합니다.

00:34:22.345 --> 00:34:23.338
첫 번째요.

00:34:23.438 --> 00:34:26.851

자연 전체가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인 건 뭐겠어요?

00:34:26.951 --> 00:34:31.539

방금 배우신 전일주의, 생태 중심주의가 되겠죠.

00:34:31.639 --> 00:34:35.012

다음, 오로지 인간만이 도덕적으로 고려 받는 것이다.

00:34:35.112 --> 00:34:38.324

인간 이외의 존재는 다 도구고 수단이고

00:34:38.424 --> 00:34:42.996

우리 인간들만 도덕적으로 고려 받는 범위에 포함될 것이다.

00:34:43.096 --> 00:34:45.744
이게 인간 중심주의의 논리죠, 뭐.

00:34:45.844 --> 00:34:47.369
되겠죠?

00:34:48.231 --> 00:34:51.111

한 개도 안 어렵고요, 다음 두 번째요.

00:34:52.212 --> 00:34:57.355

2번, 인간을 지배자가 아니고 자연의 한 부분.

00:34:57.455 --> 00:35:01.216

생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바라보자는 것은

00:35:01.316 --> 00:35:03.657

인간 중심주의를 거부하는 거잖아, 그렇지?

00:35:03.757 --> 00:35:07.559

그래서 생태 중심주의라고 보면 됩니다.

00:35:07.659 --> 00:35:10.270

쉽죠?
간단하지.

00:35:10.366 --> 00:35:12.817

다음 세 번째, 기호를 써 봐라.

00:35:12.917 --> 00:35:15.027

다 똑같은 내용이야.

00:35:15.127 --> 00:35:20.178

1번, 자연은 인간의 행복, 복지를 위해서

00:35:20.278 --> 00:35:23.226

이용되어야 될
도구와 수단에 불과하다.

00:35:23.326 --> 00:35:25.659
자연은 도구와 수단적
가치밖에 없다.

00:35:25.759 --> 00:35:27.424
인간 중심주의입니다.

00:35:27.524 --> 00:35:30.316
인간만이 목적이니까요, 오케이?

00:35:30.416 --> 00:35:35.169
다음 2, 자연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
바라보지 마라, 벗어나야 된다.

00:35:35.269 --> 00:35:37.131
이게 생태 중심주의죠.

00:35:37.231 --> 00:35:42.551
또는 넓게 보면 인간
중심주의에서 그만 좀 벗어나자.

00:35:42.651 --> 00:35:44.173
그래서 탈인간중심주의.

00:35:44.273 --> 00:35:46.633
뭐라고 부르던 상관이 없어.

00:35:46.733 --> 00:35:48.235
아시겠죠?

00:35:48.335 --> 00:35:49.742
좋고 다음요.

00:35:49.842 --> 00:35:52.191
4번에 O, X.

00:35:55.137 --> 00:35:56.892
봅시다.

00:35:56.992 --> 00:36:03.216
1,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을 다른 존재와
구분되는 유일한 존재라고 여기죠.

00:36:03.633 --> 00:36:05.056
인간 중심주의니까.

00:36:05.156 --> 00:36:07.005
이분법적 관점이었습니다.

00:36:07.145 --> 00:36:12.631
자연으로부터 우리 인간들은 분리,
독립된 그런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.

00:36:12.731 --> 00:36:13.452
오케이.

00:36:13.552 --> 00:36:16.330
다음 2, 인간 중심주의는

00:36:16.430 --> 00:36:21.251

자연 그 자체를 가치가 있는
존재로 여길 리가 없죠.

00:36:21.351 --> 00:36:21.869

그렇잖아요.

00:36:21.969 --> 00:36:24.552

인간 중심주의는 인간만
가치가 있는 거거든.

00:36:24.652 --> 00:36:28.177

자연도 그 자체로서
내재적 가치가 있다,

00:36:28.277 --> 00:36:31.205

이건 생태 중심주의의 논리였습니다.

00:36:31.305 --> 00:36:32.607

되지?

00:36:32.707 --> 00:36:35.771

다음 3번, 생태 중심주의는

00:36:35.871 --> 00:36:39.410

상호 의존성에 바탕을 둔
생명 공동체를 강조하겠죠.

00:36:39.510 --> 00:36:40.622

당연한 거죠.

00:36:40.722 --> 00:36:44.517

자연과 인간은 상호의존적인
관계에 놓여있고

00:36:44.617 --> 00:36:49.347

이 거대한 지구 전체가 살아있는
생명공동체임을 강조하는 것이

00:36:49.447 --> 00:36:53.651

생태 중심주의의 특징이
되는 거죠, 이해됐지?

00:36:53.751 --> 00:36:58.848

다음 4번, 생태 중심주의는
환경의 위기 원인이

00:36:59.724 --> 00:37:03.825

인간 중심주의적인 태도
때문이다, 라고 보는 거죠.

00:37:03.925 --> 00:37:08.682

모든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이
인간 중심주의 때문이니까

00:37:08.782 --> 00:37:13.621

생태 중심주의라는 새로운 게
생긴 거예요, 아시겠죠?

00:37:13.721 --> 00:37:18.958

다음 5번, 생태 중심주의는
환경 문제 해결하려면

00:37:19.058 --> 00:37:21.716

자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
된다고 보는 거죠.

00:37:21.816 --> 00:37:27.310

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날 때가
됐다,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

00:37:27.410 --> 00:37:28.348

되죠?

00:37:28.448 --> 00:37:33.699

다음 6번,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의
선보다 생태계 전체를 우선시한다.

00:37:33.799 --> 00:37:34.305

아니죠.

00:37:34.405 --> 00:37:38.717

생태계 전체의 가치를 우선시하는
것이 바로 생태 중심주의입니다.

00:37:38.817 --> 00:37:42.420

전체주의적 논리가
내포되어있으니깐요.

00:37:42.520 --> 00:37:43.388

되나?

00:37:43.488 --> 00:37:46.853

다음 마지막 7번,
인간 중심주의 입장에서

00:37:46.953 --> 00:37:49.521

오늘날의 환경 위기는
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니다.

00:37:49.621 --> 00:37:51.450

이건 거짓말입니다.

00:37:51.550 --> 00:37:56.153

아무리 인간 중심주의라고 해도 이
환경 오염 문제는 해결 안 해도 돼.

00:37:56.253 --> 00:37:57.347

이건 아니죠.

00:37:57.447 --> 00:38:01.253

해결 방법이 과학만능주의적인
방식인 거지

00:38:01.353 --> 00:38:04.597

지구가 다 썩어가는데
인간 중심주의라고 해서

00:38:04.697 --> 00:38:06.900

아, 몰라 대충 살다 죽자.

00:38:07.000 --> 00:38:08.674
이건 아니에요.

00:38:08.774 --> 00:38:10.062
이해되겠죠?

00:38:10.162 --> 00:38:14.481
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
바라보는 게 다른 거고

00:38:14.581 --> 00:38:17.276
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

00:38:17.376 --> 00:38:21.311
인간 중심주의라고 해서 지구가 망하면
지구 또 만들면 되지, 뭐.

00:38:21.411 --> 00:38:23.113
이건 아닌 거예요.

00:38:23.213 --> 00:38:23.915
아시겠죠?

00:38:24.015 --> 00:38:26.877
이건 완전히 논리의 비약이죠.

00:38:26.977 --> 00:38:27.843
정리가 다 됐죠?

00:38:27.943 --> 00:38:28.714
오케이.

00:38:28.814 --> 00:38:30.024
여기까지입니다.

00:38:30.124 --> 00:38:34.330
인간과 자연의 관점, 인간
중심주의하고 생태 중심주의.

00:38:34.430 --> 00:38:37.721
이 커다란 두 개의 관점을
한번 정리를 해봤고요.

00:38:37.821 --> 00:38:40.092
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은
학년 올라가서 배우세요.

00:38:40.192 --> 00:38:42.695
어차피 통합 사회에서는
여기까지만 딱 나오니까

00:38:42.795 --> 00:38:47.067
학교 내신 시험도 여기까지만
딱 나오고 말 거예요.

00:38:47.167 --> 00:38:47.779
됐죠?

00:38:47.879 --> 00:38:48.738
좋고요.

00:38:48.838 --> 00:38:49.675
수고하셨습니다.

00:38:49.775 --> 00:38:55.308
저는 이제 자연 지리 마지막 테마를
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

00:38:55.408 --> 00:38:56.041
아시겠죠?

00:38:56.141 --> 00:38:57.776
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

00:38:57.876 --> 00:38:59.869
다음 강의에서 또
인사 올리겠습니다.

00:38:59.969 --> 00:39:02.173
수고하셨습니다.